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원 사업을 완수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음을 기리는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승천을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사도 1,9)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사도들은 겁쟁이처럼 숨어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사도 1,8)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첫째, 하늘에 가시어 천국 문을 여시고, 사람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천상의 길을 개척하신 것입니다(요한 14, 2-4). 둘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승천으로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요한 7, 39). 셋째,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승천을 통하여 속죄

재물로 바침으로써 변화무쌍한 세상 영역을 벗어나서 완전무결한 천상 세계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히브 7,26-28 ; 9, 23-25) 다시 말해, 예수님은 “바로 만물을 총만케 하시려고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에페 4,10). 곧 인류 구원사업을 완성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어느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온 우주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 우주적 성격 때문에 주님이 시간을 초월할 뿐 아니라 우주에 대한 최고의 권능을 지니셨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바오로 사도는 여러 편지(1고린 15, 24 ; 골로 3,1-4)에서 주님이 하늘의 모든 세력에 대해서도 승리자요, 만물을 하나로 묶어 그 머리가 되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하늘로 오르시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또 언제나 우리 자신을 초월해 계신다는 사실을 함께 말해주는 신앙입니다.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사도 1, 11)

천사의 이 말은 승천의 의미를 간결하게 설명할 뿐 아니라,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뽑힌 이들을 위하여 먼저 승천하시어 자리를 준비한 다음 다시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하느님 나라에 올라가 영원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임무는 선교 사명입니다. 신자들은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세상에 나가 시간을 내어 열성적인 선교 사명을 실천한 다음,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시기는 바로 선교의 시기이며, 그리스도인 우리 각자의 사명은 주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상지대학교 김기현 모이세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며, 홍보주일이고 청소년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영광스럽게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오르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에 힘입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내리신 복음 선포의 사명에 충실할 것을 거듭 다짐하며 이 전례에 기쁘게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141번 '죽음을 이긴'

본기도

†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저희를 들어 높이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기쁨에 가득 차 감사의 제사를 바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하늘 나라에 그 지체인 저희의 희망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사도행전 1장 1절-11절

안 내 : 사도행전의 저자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다고 합니다.

묵 상 :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이 우리들 곁을 영원히 떠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임마누엘 하느님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벗이요 동반자가 되어 주십니다.

화 답 송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제2독서 : 에페소서 1장 17절-23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묵 상 : 예수님께서 하느님 영광의 자리인 하늘로 오르심으로써 하늘은 이제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땅에 매여 사는 인생이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향해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잇고 사는 이들이 하늘을 볼 수 있도록 곁에서 머물며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28장 16절-20절

강 론 :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1-2쪽)

예물준비성가 : 210번 ‘나의 생명 드리니’

영성체성가 : 175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성체 후 묵상

누군가가 나와 진정으로 함께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 올 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이 내가 되고 내가 그 사람이 될 때입니다.

<침묵>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면서

“복음선포”의 사명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육체적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사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분의 삶을 살아 보아야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이해 할 수 있고 그 분을 마음 깊숙한 곳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그 분은 참으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37번 ‘부활하신 주 예수’(2,3)

※ 공소사목 성금

외어공소

20,000원

모서공소

20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3,35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해 주세요.



알 림

■ 청소년 축제

- 주제 :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2코린 4.12)
- 일시 : 5월 28일(주일) 09:30 - 17:30
- 장소 : 가톨릭상지대학교 소피아관
- 대상 :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
- 준비물 : 주일 미사 준비, 개인 식수, 운동화
- 회비 : 참가하는 모든 인원(교사, 봉사자 포함)
1인 10,000원(점심 제공)

■ 교구 사제피정

- 일시 : 5월 29일(월) 17:00 - 6월 2일(금) 점심
- 장소 : 농은수련원
- 준비물 : 미사준비, 성무일도, 세면도구, 필기도구

■ 여름신앙학교 교사연수

- 일시 : 6월 10일(토) 13:30 - 11일(주일) 15: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미사 준비
- 회비 : 1인 45,000원
- 신청 : 5월 29일(월)까지 사목국

■ 예신 전체모임

- 일시 : 6월 18일(주일) 12:00
- 장소 : 교구청

■ 성령강림 특별피정

- 일시 : 6월 3일(토) 10:00 - 17:00
- 장소 : 서문동성당
- 강사 : 이보경 데레사(수원교구)
- 회비 : 5천원(식대 포함)
- 문의 : 성령봉사회 010-8447-0111

■ 교구청 사목방문 일정 안내

- 6월 4일(성령 강림 대축일) : 춘양 본당
- 6월 11일(삼위일체 대축일) : 풍기 본당

■ 농은수련원 어르신 피정

- 주제 : 말씀과 함께하는 은빛청춘
-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30명 이내
- 일시 : 6월 16일(금)14:00-17일(토)13:00
- 장소 : 농은수련원
- 피정비 : 1인 6만원(숙식, 피정비 포함)
- 신청 및 문의 : 054)652-0591/ 010-2785-0591

■ 꾸르실료 월례 미사

- 일시 : 6월 19일(월) 20:00
(매월 셋째주 월요일)
- 장소 : 송현동성당
- 꾸르실리스따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 농은수련원 부부피정

- 주제 : 미, 사, 고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 대상 :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부부(15쌍)
- 일시 : 6월 24일(토)14:00-25일(주일)13:00
- 장소 : 농은수련원
- 피정비 : 부부 12만원(숙식, 피정비 포함)
- 신청 및 문의 : 054)652-0591/ 010-2785-0591

■ 독서치료와 함께 하는 어머니 교실

- 주제 : 나를 알면 아이의 마음이 보여요!
- 대상 : 주일학교 자모 혹은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일반인 포함)
- 인원 및 기간 : 10명 이내 / 주 1회 4회기
- 회비 : 총 6만원
- 장소 및 일시 : 신청분당 상황에 맞게
일시 조절하여 현장에 진행
- 신청 및 문의 : 농은수련원
054)652-0591/010-2785-0591

■ 울진 베네딕도교육관 이용안내

- 각종 세미나·연수·개인·단체피정
- 숙박·자체취사 가능
- 대강의실, 나눔방 2
- 문의 : 054-783-6684, 010-5348-3431

■ 할머니두레집 입소자 모집

- 65세 이상 여자 어르신
- 요양등급 상관없음
- 입소비 월 60만원
- 문의 : 054-541-5173, 010-6516-0191

존중을 통한 관계성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1요한 1,3)

한국 천주교회는 가정의 달인 5월의 마지막 주일을 청소년 주일로 기념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주일을 포함하여 그 전(前) 주간을 교육 주간으로 정하여, 우리 모두가 청소년 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기를 촉구하며 또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야 할 교육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론을 통합할 지도자의 부재, 침체된 경제와 불확실한 미래, 세대·계층 간의 갈등 등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률이 가장 높고,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다는 국제지표는 우리 청소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온전한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는 새로운 신체적·정신적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기에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회와 어른들의 관심은 청소년 개인의 인격보다는 진학과 진로에 맞춰져 있고, 결국 청소년들은 방황, 폭력, 중독, 자살 등과 같은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열린 마음으로 의지하고 서로를 도우며 공동선을 이뤄가는 '관계성'을 기초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청소년은 부모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지지와 격려를 받습니다. 또 학교에서 그들은 친구와 선생님의 관계를 맺으며 놀이와 배움을 통해 사회성을 체득합니다. 또한 그들은 더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가 존재하는 사회 안에서 문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시민성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가정교육이고, 학교교육이며, 사회교육입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관계 형성을 통해 보편적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요한 3.16). 이러한 하느님 사랑에로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하느님과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친밀한 사랑의 친교에 머물게 되고 나아가 이 친교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1요한 1.3. 참조). 이러한 하느님의 친교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단절과 분열과 불신이 팽배한 이 세상을 일치와 대화의 모습으로 바꾸어 줍니다. 여기에 바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교육 주간을 보내며, 청소년들의 관계성 회복과 형성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1. 가정에서 우선 가족 간에 깊은 유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관계 형성이 올바른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 학교에서 학생과 선생님, 학생과 학생 간의 깊은 존중을 통한 관계 회복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집단 따돌림과 학교 폭력 같은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학교에서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음으로써 학생들도 다른 이들을 존중할 수 있는 지혜를 습득하게 됩니다.

3. 사회 안에 존중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세상은 존재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 문화가 우리 청소년의 미래를 밝게 이끌 수 있습니다

2017년 교육주간을 맞이하면서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들 그리고 교육 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교육자, 학부모 모두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



살림터 이야기

3,000원의 경제학

김동남 로사
(안동가톨릭문인회)

명절을 앞두고 때가 때인지라 조금 많은 액수의 장을 보았더니 마트에서 이벤트 기간이라며 쿠폰을 한 장 주었다. 그 자리에서 굽어보는 100% 당첨 쿠폰이다. 100%당첨이라는 문구에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받자마자 동전으로 굽어보았다. 쿠폰에는 두 가지 선택사항이 제시되어 있었다. 다음에 와서 3000원 현금할인을 받던지 아니면 지금 서비스데스크에 가서 쿠폰으로 칼라시트도마 세트와 교환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였다. 지금 나의 주방에는 사용하지도 않는 도마를 비롯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마가 서너 개나 되니 굳이 도마를 선택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현금 3000원의 구매력은 엄청나다. 몇 백 원만 보태면 옥동의 어느 식당에 가서 콩나물 해장국으로 한 끼를 거뜬히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집 근처에 중년부부가 새로 시작한 봉어빵노점이 있는데 배 가득히 팔 양금이 터질 듯이 들어있는 봉어빵을 12개나 살 수 있는 금액이다. 어디 그 뿐인가, 그 돈이면 뺨다방에 가서 아메리카노 두 잔으로 몇 시간이고 친구와 당당하게 수다를 떨 수도 있다.

100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카트를 일렬로 정리하는 수고로움도 기꺼이 감수하는데 아무런 노력없이 얻은 3000원은 내 하루의 기분을 쇄신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인 것이다. 잃어버릴세라 지갑 안쪽 깊숙이 쿠폰을 접어 넣은 나는 발걸음도 가볍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깜박 잊고 있다가 쿠폰마감일이 임박해서야 생각이 난 나는 부랴부랴 마트로 달려갔다.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어서 미처 몰랐는데 50000원 이상을 구매하여야만 3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그렇지, 마트라고 해서 절대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겠지. 3000원을 할인받겠다고 50000원을 채우기 위해서 마트를 몇 바퀴나 돌아보았지만 하필 오늘따라 필요한 물품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서 집안 어딘가에 쌓아 둔다는 것도 평소 나의 합리적인 장보기 철학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발품만 팔다 결국 나는 쿠폰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왠지 찝찝하고 불쾌하였다. 그 원인을 되짚어보니 3000원으로 소비자를 유혹한 마트 쪽의 상술에 쉽게 넘어간 자신이 못마땅했고 공짜로 생긴 3000원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이것저것 가성비까지 산출해가며 꼼꼼하게 따진 자신이 참 바보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쿠폰이 아니더라도, 봉어빵을 사서 늘 나에게 과일 하나라도 더 얹어 주는 과일가게 아주머니와 봉어빵을 나눌 생각을 왜 하지 못했을까.

쿠폰이 아니더라도, 수요일 레지오를 마치면 바로 점심시간인데 단원들과 콩나물국밥이라도 함께 할 생각을 왜 못했을까. 마치자마자 뭐가 그리 바쁘다고 뒤도 안돌아보고 성당언덕을 종종걸음으로 내달렸을까.

쿠폰이 아니더라도, 여신의 로고와 분위기에 이끌려 유명커피점에서 비싼 커피를 마시며 누가 오늘 커피값을 지불할건지 눈치 볼 게 아니라 부담없는 뺨다방에서 친구를 위해 기꺼이 커피도 살 수 있음을... 그렇구나, 큰돈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보다 훨씬 큰 가치의 행복을 만들 수 있음을 발견하였으니 이게 진정한 3000원의 경제학이다.